

##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희홍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 Influencing factors on happiness index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Hee-Hong M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Science College

\*Corresponding Authors: Hee-Hong M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Science College, 77-3 Gayang 2-dong, Dong-gu, Daejeon, 330-711, Korea; Tel: +82-42-670-9194, Fax: +82-42-670-9586, E-mail : hhmin1@hanmail.net

Received: 17 September 2014; Revised: 18 November 2014; Accepted: 26 January 2015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se of happiness index in dental hygienists. This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turnover intention in the dental hygienis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81 dental hygienists in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 province.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the subject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7 ques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7 questions of dental hygiene performance, and 9 questions of happiness index. The instrument for happiness index was modified from Suh and Koo. Cronbach's alpha was 0.850 in the happiness index measure by Likert 7 scale. The instrument for professionalism was modified from Baek and consisted of 25 questions measure by Likert 5 scale. Cronbach's alpha was 0.694 in the professionalism. The instrument for turnover intention was modified from Lee and consisted of 5 questions measured by Likert 5 scale. Cronbach's alpha was 0.712 in turnover inten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for one way ANOVA, Duncan posthoc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sults:** The means of happiness index, professionalism and turnover intention of subjects were 4.44, 3.06 and 3.05, respectively. The happiness index was higher in those who are married(4.66), those who have high income, and those who have careers in dental hygienists(4.6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appiness index by the average daily working hours, place of treatment, work intensity and off duty hour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ement of the happiness index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requires the continuing and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and administrative support that can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Key Words:** clinical dental hygienists, happiness index, professionalism, turnover intention

**색인:** 이직의도, 임상치과위생사, 전문 직업성, 행복지수

### 서론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와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이며<sup>1)</sup>, 물질적 풍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에 있다. 행복지수는 생활의 만족도와 풍요로움을 지표화하는 자료로서 2012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하였고, 학력 수준, 학업성취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고용, 노동 시간, 환경 등에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sup>2)</sup>.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복지수 조사는 2003년 주간동아가 전국의 642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sup>2)</sup>, 2005년 추<sup>3)</sup>는 성

인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등의 요인이 개인의 행복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로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보건의료현장에서 구강건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구강질환을 관리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구강보건 전문가이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 중 하나이다<sup>4)</sup>. 치과위생사의 평균 근무 수명은 3년에 불과하며, 수행하는 업무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직 중 근무연수가 가장 짧고 이직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치과위생사의 이직률을 살펴보면 안 등<sup>6)</sup> 연구에서는 72.8%, 백<sup>7)</sup>의 연구에서는 60.8%가 이직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간호사의 이직률은 대략 20~30% 정도로 예상되고 이직의사를 갖고 있는 잠재적 이직자까지 포함하면 70~80%에 이르러 심각성을 보고하였다<sup>8)</sup>. 또한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령, 성별, 경력, 학력 등 개인특성, 조직전체요인, 환경요인, 외부환경요인, 직무만족 등이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9-13)</sup>. 이처럼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sup>14-18)</sup>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행복지수와 전문 직업성의 향상으로 이직을 감소시켜 임상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울·경기·충청지역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를 편의추출하여 직접방문 또는 E-mail을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30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19부를 제외한 281부를 최종 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직무특성 7문항, 행복지수는 9문항으로 축약한 서와 구<sup>19)</sup>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행복 측정 도구는 부정적 정서를 역산했을 때 행복지수 9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  계수가 0.850이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문 직업성에 대한 척도는 백<sup>20)</sup>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 연구한 전문 직업성 문항의 설문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 직업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 는 0.694이었다. 이직의도는 이<sup>21)</sup>가 개발한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총 5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이다. Cronbach's  $\alpha$ 는 0.712이었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근무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특성에 따른 행복지수는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행복지수, 전문 직업성,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에서는 25세 미만이 41.6%로 가장 많았고, 25-29세는 33.5%, 30-34세는 14.9%였으며, 35세 이상은 10.0%로 가장 낮았다. 교육 수준은 3년제 대학이 70.1%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은 24.6%, 대학원 졸업은 5.3%로 가장 낮았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72.6%였으며, 수입에서는 160-199만원이 35.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160만원 미만이 35.2%였다. 직위는 일반 진료팀이 68.3%였고, 실장급이 31.7%였다.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53.4%로 가장 높았고, 5-9년은 28.1%, 10년 이상은 18.5%였다. 치과의 유형은 치과 병원이 49.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개인 의원은 33.5%였으며, 공동 개원형태는 13.9%,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형태는 2.8%였다 <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5	117	41.6
	25-29	94	33.5
	30-34	42	14.9
	≥ 35	28	10.0
Education	College(3yr)	197	70.1
	Bachelor(4yr)	69	24.6
	Graduate school	15	5.3
Marital status	Single	204	72.6
	Married	77	27.4
Income (Unit : million won)	<160	99	35.2
	160-199	100	35.6
	200-249	49	17.4
	≥ 250	33	11.7
Position	Acting	192	68.3
	Head	89	31.7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year)	<5	150	53.4
	5-9	79	28.1
	≥ 10	52	18.5
Type of dental clinic	Individual	94	33.5
	Joint open	39	13.9
	Dental hospital	140	49.8
	General, university hospital	8	2.8
Total		281	100.0

Table 2. The work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Department	General treatment	153	54.4
	Prosthodontics	20	7.1
	Surgery or implant	16	5.7
	Pediatric Dentistry	19	6.8
	Orthodontic	32	11.4
	Reception, Counseling	41	14.6
	Duty hours (hour)	<8	53
	8-9	172	61.2
	≥ 10	56	19.9
	The number of patients per day (persons)	<30	128
Work type	30-49	90	32.0
	50-69	31	11.0
	≥ 70	32	11.4
	The five-day workweek	184	65.5
Operation type	The six-day biweekly	47	16.7
	The six-day workweek	50	17.8
	Standup posture	140	49.8
Strength of work	Sit down posture	141	50.2
	Tolerable	149	53.0
Rest of work	Hard	110	39.1
	Wants to quit	22	7.8
	Restless	85	30.2
Total	Sometimes rest	175	62.3
	Often rest	21	7.5
Total		281	100.0

## 2. 연구대상자의 근무 특성

연구대상자의 근무 특성을 살펴보면 진료영역은 일반적인 모든 치료영역이 54.4%로 가장 높았고, 상담영역은 14.6%, 교정영역은 11.4%였다. 근무시간은 8-9시간이 61.2%로 가장 높았고, 10시간 이상은 19.9%, 8시간 미만은 18.9%였다. 일일 평균 환자수는 30명 미만이 45.6%로 가장 높았고, 30-49명은 32.0%로 그 뒤를 이었다. 70명 이상은 11.4%, 50-69명은 11.0%였다. 주중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가 65.5%로 가장 높았고, 주중 6일 근무는 17.8%, 격주 6일 근무는 16.7%였다. 작업 형태는 '앉아서'가 50.2%, '서서'가 49.8%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근무강도는 '참을만 하다'가 53.0%, '힘들다'가 39.1%, '그만 두고싶다'가 7.8%였다. 근무 중 휴식은 '때때로 쉰다'가 62.3%로 가장 높았고, '실 틈이 없다'가 30.2%였다<Table 2>.

## 3. 연구대상자의 행복지수, 전문 직업성, 이직의도에 대한 인식

연구대상자의 행복지수와 전문 직업성, 이직의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행복지수는 7점 만점, 전문 직업성, 이직의도는 5점 만점으로 측정되었다. 그 결과, 행복지수의 평균은 4.44점, 전문 직업성은 3.06점, 이직의도는 3.04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 산출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0.6 이상의 Cronbach's Alpha 계수를 보여,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3>.

## 4. 행복지수, 전문 직업성,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행복지수와 전문 직업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0.396, p<0.001$ ), 행복지수와 이직의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 $r=-0.320, p<0.001$ ), 또한 전문 직업성과 이직의도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0.228, p<0.001$ )<Table 4>.

##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는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결혼여부, 수입, 직위, 근무경력에 따라 행복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교육수준에 따른 행복지수를 살펴본 결과, 대학원 이상(4.87점)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행복지수는 기혼(4.65점)이 미혼(4.35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입에 따른 행복지수는 수입이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지는 성향을 보였다. 직위에 따라서는 일반 치과위생사(4.35점)보다는 책임급 치과위생사(4.62점)가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났다<Table 5>.

## 6. 연구대상자의 근무특성에 따른 행복지수

연구대상자의 근무특성에 따른 행복지수는 분석한 결과 주 진료영역, 일일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작업형태, 근무강도, 근무 도중 휴식에 따라 행복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주 진료영역에 따라서는 교정, 접수/상담이 비교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치과보철과와 외과 및 임플란트는 행복지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일일평균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8시간 이상보다는 8시간 미만인 경우 행복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작업 형태에 따라서는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강도에서는 '견딜만 하다'라고 응답한 경우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근무 도중 휴식에 따라서는 '어렵지 않게 실수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Table 6>.

Table 3. Degree of happiness index, professionalism, turnover intention

Characteristics	N	M	SD	Range	Cronbach's alpha
Happiness Index	281	4.44	0.84	1~7	0.852
Professionalism	281	3.06	0.27	1~5	0.693
Turnover intention	281	3.04	0.65	1~5	0.715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

Variable	Happiness Index	Professionalism	Turnover intention
Happiness Index	1		
Professionalism	0.396*	1	
Turnover intention	-0.320*	-0.228*	1

\*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Difference in happiness index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SD	t or F	p-value*
Age (year)	<25	117	4.36	0.77	2.623	0.051
	25-29	94	4.36	0.84		
	30-34	42	4.64	0.84		
	≥ 35	28	4.73	1.00		
Education	College(3yr)	197	4.36 <sup>a</sup>	0.85	3.852	0.022
	Bachelor(4yr)	69	4.57 <sup>ab</sup>	0.76		
	Graduate school	15	4.87 <sup>a</sup>	0.86		
Marital status	Single	204	4.35	0.80	-2.699	0.007
	Married	77	4.65	0.90		
Income (Unit : million won)	<160	99	4.35 <sup>a</sup>	0.73	4.585	0.004
	160-199	100	4.31 <sup>a</sup>	0.85		
	200-249	49	4.59 <sup>ab</sup>	0.89		
	≥ 250	33	4.85 <sup>a</sup>	0.89		
Position	Acting	192	4.35	0.78	-2.548	0.011
	Head	89	4.62	0.93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year)	<5	150	4.31 <sup>a</sup>	0.75	5.024	0.007
	5-9	79	4.49 <sup>ab</sup>	0.91		
	≥ 10	52	4.72 <sup>a</sup>	0.91		
Type of dental clinic	Individual	94	4.47	0.87	2.579	0.054
	Joint open	39	4.65	0.82		
	Dental hospital	140	4.33	0.80		
	General, university hospital	8	4.93	0.98		
Total		281	4.44	0.84		

\*by t-test or one-way ANOVA  
a<b, ab≠a≠b : Duncan

Table 6. Difference in happiness index according to work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SD	t or F	p-value*
Department	General treatment	153	4.38 <sup>a</sup>	0.76	2.816	0.017
	Prosthodontics	20	4.11 <sup>a</sup>	0.77		
	Surgery or implant	16	4.13 <sup>ab</sup>	0.52		
	Pediatric Dentistry	19	4.54 <sup>ab</sup>	1.08		
	Orthodontic	32	4.62 <sup>b</sup>	0.85		
	Reception, Counseling	41	4.75 <sup>b</sup>	1.01		
			41	4.75 <sup>b</sup>		
Duty hours (hour)	<8	53	4.69 <sup>a</sup>	1.00	3.155	0.044
	9-10	172	4.38 <sup>a</sup>	0.76		
	≥ 10	56	4.36 <sup>b</sup>	0.88		
The number of patients per day (persons)	<30	128	4.56	0.85	1.958	0.120
	30-49	90	4.29	0.69		
	50-69	31	4.37	0.91		
	≥ 70	32	4.44	1.04		
Work type	The five-day workweek	184	4.41	0.86	0.458	0.633
	The six-day biweekly	47	4.54	0.81		
	The six-day workweek	50	4.44	0.79		
Operation type	Standup posture	140	4.34	0.78	-1.989	0.048
	Sit down posture	141	4.54	0.88		
Strength of work	Tolerable	149	4.57 <sup>a</sup>	0.82	14.083	<0.001
	Hard	110	4.42 <sup>b</sup>	0.80		
	Wants to quit	22	3.61 <sup>b</sup>	0.70		
Rest of work	Restless	85	4.17 <sup>a</sup>	0.86	11.556	<0.001
	Sometimes rest	175	4.49 <sup>a</sup>	0.77		
	Often rest	21	5.07 <sup>b</sup>	0.89		
Total		277	4.44	0.83		

\*by t-test or one-way ANOVA  
a<b, ab≠a≠b : Duncan

Table 7. Factor of affecting happiness index

Characteristics	Categories	Model 1		Model 2		Model 3	
		$\beta(t)$	p-value*	$\beta(t)$	p-value*	$\beta(t)$	p-value*
	(constant)	5.57 (13.65)	<0.001	4.67 ( 8.96)	<0.001	2.23 ( 2.57)	0.011
Age	<25	0.43 ( 1.31)	0.192	0.26 ( 0.78)	0.435	0.46 ( 1.46)	0.146
	25-29	0.17 ( 0.58)	0.566	0.23 ( 0.77)	0.442	0.46 ( 1.59)	0.114
	30-34 ≥35	0.11 ( 0.49)	0.628	0.11 ( 0.50)	0.617	0.21 ( 1.00)	0.317
Education	College(3yr)	-0.33 (-1.41)	0.160	-0.28 (-1.23)	0.220	-0.27 (-1.28)	0.203
	Bachelor(4yr)	-0.16 (-0.65)	0.519	-0.08 (-0.33)	0.739	-0.08 (-0.36)	0.719
	Graduate school						
Marital status	Single	-0.15 (-1.02)	0.308	-0.15 (-1.01)	0.315	-0.06 (-0.42)	0.675
	Married						
Income	<160	-0.48 (-2.05)	0.041	-0.33 (-1.35)	0.177	-0.41 (-1.83)	0.069
	160-199	-0.45 (-2.09)	0.038	-0.38 (-1.71)	0.089	-0.38 (-1.82)	0.070
	200-249	-0.25 (-1.27)	0.206	-0.20 (-0.98)	0.330	-0.24 (-1.27)	0.205
	≥250						
Position	Acting	0.08 (0.49)	0.623	0.17 ( 1.03)	0.306	0.28 ( 1.80)	0.073
	Head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5	-0.32 (-1.15)	0.250	-0.18 (-0.64)	0.520	-0.27 (-1.06)	0.289
	5-9	-0.12 (-0.53)	0.594	-0.06 (-0.28)	0.780	-0.13 (-0.60)	0.550
	≥10						
Type of dental clinic <sup>6</sup>	Individual	-0.43 (-1.39)	0.166	-0.40 (-1.28)	0.203	-0.42 (-1.44)	0.152
	Joint open	-0.25 (-0.76)	0.448	-0.20 (-0.61)	0.546	-0.27 (-0.88)	0.378
	Dental hospital	-0.60 (-1.95)	0.052	-0.48 (-1.54)	0.124	-0.48 (-1.63)	0.104
	General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General treatment			-0.09 (-0.50)	0.619	-0.18 (-1.08)	0.282
	Prosthodontics			-0.07 (-0.25)	0.805	-0.10 (-0.40)	0.691
	Surgery or implant			-0.29 (-1.09)	0.276	-0.24 (-0.98)	0.327
	Pediatric Dentistry			0.21 ( 0.79)	0.428	0.19 ( 0.78)	0.438
	Orthodontic			0.17 ( 0.80)	0.426	0.13 ( 0.64)	0.520
	Reception, Counseling						
Duty hours	<8			0.21 ( 1.19)	0.236	0.21 ( 1.28)	0.201
	8-9			0.04 ( 0.31)	0.758	0.15 ( 1.19)	0.235
	≥10						
The number of patients per day	<30			0.21 ( 1.25)	0.214	0.07 ( 0.43)	0.665
	30-49			0.01 ( 0.07)	0.945	0.02 ( 0.09)	0.925
	50-69			0.20 ( 0.87)	0.387	0.05 ( 0.24)	0.811
	≥70						
Work type	The five-day workweek			0.11 ( 0.78)	0.439	0.09 (0.071)	0.480
	The six-day biweekly			0.16 ( 0.94)	0.349	0.17 ( 1.08)	0.279
	The six-day workweek						
Operation type	Standup posture			-0.05 (-0.42)	0.675	-0.09 (-0.84)	0.402
	Sit down posture						
Strength of work	Tolerable			0.77 ( 3.61)	<0.001	0.54 ( 2.56)	0.011
	Hard			0.74 ( 3.54)	<0.001	0.53 ( 2.65)	0.009
	Wants to quit						
Rest of work	Restless			-0.47 (-1.98)	0.048	-0.25 (-1.14)	0.256
	Sometimes rest			-0.33 (-1.59)	0.113	-0.15 (-0.74)	0.461
	Often rest						
Professionalism					1.00 ( 5.40)	<0.001	
Turnover intention					-0.22 (-2.78)	0.006	
F(p)		2.001(0.016)		2.365(<0.001)		3.791(<0.001)	
R <sup>2</sup>		0.102		0.234		0.344	

\*by hierarchical regression

## 7.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문 직업성과 이직의도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 변수만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F값이 2.001( $p<0.05$ )으로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R제곱이 0.102로 10.2%의 설명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는 또 다른 통제변수인 근무 특성 변수를 추가적으로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F값이 2.365( $p<0.001$ )로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R제곱이 0.234로 23.4%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전문직업성과 이직의도를 독립변수에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F값이 3.791( $p<0.001$ )로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R제곱이 0.344로 34.4%의 설명력을 보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만이 포함된 1단계에서는 수입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160이상~199미만의 수입자는 250이상의 수입자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 ). 근무 특성 변수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2단계에서는 근무 강도와 근무 도중 휴식이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근무강도는 ‘힘들어 관두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힘든 편’이거나 ‘견딜만 하다’는 경우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beta>0$ ), 근무 도중 휴식은 ‘거의 쉴 틈이 없다’는 응답자가 ‘어렵지 않게 쉴 수 있다’는 응답자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beta<0$ ).

마지막 독립변수인 전문 직업성과 이직의도가 포함된 3단계에서는 근무강도, 전문 직업성, 이직의도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강도는 앞서 2단계와 마찬가지로 ‘힘들어 관두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힘든 편’이거나 ‘견딜만 하다’는 경우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beta>0$ ), 독립변수의 경우는 전문 직업성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p<0.001$ ,  $\beta>0$ ), 이직의도는 행복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0.01$ ,  $\beta<0$ )<Table 7>.

## 총괄 및 고안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 직업성의 평균은 3.06점으로 나타났고, 이<sup>14)</sup>와 남과 권<sup>22)</sup>의 연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치과위생사의 전문 직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제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의도의 평균은 3.04점으로 나타났고 남과 권<sup>22)</sup>의 연구

에서는 3.3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 등<sup>18)</sup>의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무경력이 낮고, 치과의원에 근무하며,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직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전문 직업성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더불어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행복지수의 평균은 4.44점으로 나타나 이<sup>16)</sup>와 윤<sup>23)</sup>의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행복지수가 본 연구에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분포가 25세미만이 41.6%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남과 권<sup>22)</sup>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높게 나타나 간호직은 3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기 힘든 직종으로 임상에서 근무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에서는 기혼이고, 수입이 많을수록, 책임급 치과위생사일수록,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일 때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결혼여부, 수입, 직위, 근무경력에 따라 행복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sup>16,22)</sup>. 기혼에서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결혼 후 정서적 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와 연령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기혼자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숙련도와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행복은 나이가 들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장기간 근무를 통하여 임상경험이 풍부해질 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근무특성에 따른 행복지수는 주 진료영역, 일일평균 근무시간, 신체적 작업 형태, 근무강도, 근무 도중 휴식에 따라 행복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주 진료영역은 접수와 상담업무를 담당할 때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교정치과업무, 소아치과업무, 일반진료업무, 구강악안면외과 및 치과임플란트 업무, 치과보철업무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도 8시간 미만 근무할 때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sup>16)</sup>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실에서의 업무 수행은 코디와 상담업무에 비해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고,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 직업성은 행복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p<0.001$ ,  $\beta>0$ ), 이직의도는 행복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0.01$ ,  $\beta<0$ ). 또한 F값이 3.791( $p<0.001$ )로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R제곱이 0.344로 34.4%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간호사의 행복지수 영향 요인을 연

구한 남과 권<sup>22)</sup>의 연구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이 29.9%로 나타났다. 즉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전문직관이 높으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개인의 행복지수 수준과 결정요인을 연구한 추<sup>2)</sup>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등의 요인이 개인의 행복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설명력은 35.4%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특성 중 수입이 낮은 경우에 행복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업무 중 휴식을 자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거의 취하지 못할 때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 직업성과 이직의도를 포함한 전체모델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강도, 전문 직업성, 이직의도가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직업성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졌고, 업무강도는 낮은 경우에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이직의도는 높을수록 행복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아서 전체 임상치과위생사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과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사료된다.

## 결론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가 행복한 전문직업인으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경기·충청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81명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행복지수(7점)는 4.44점, 전문 직업성(5점)은 3.06점, 이직의도(5점)는 3.04점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는 기혼이 고(4.65점), 책임급 치과위생사(4.62점)이며, 수입과 근무경력에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결혼여부, 수입, 직위, 근무경력에 따라 행복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3. 연구대상자의 근무특성에 따른 행복지수는 주 진료영역, 일일평균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강도, 근무 도중 휴식

에 따라 행복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4. 행복지수와 전문 직업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r=0.396$ ,  $p<0.001$ ), 행복지수와 이직의도( $r=-0.320$ ,  $p<0.001$ ), 전문 직업성과 이직의도( $r=-0.228$ ,  $p<0.001$ )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 직업성 행복지수에 정(+)<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p<0.001$ ,  $\beta>0$ ), 이직의도는 행복지수에 부(-)<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0.01$ ,  $\beta<0$ ). 또한 F값이 3.791( $p<0.001$ )로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R제곱이 0.344으로 34.4%의 설명력을 보였다.</sup></sup>

이상의 결과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 직업성과 이직의도를 포함한 전체모델에서 업무강도, 전문 직업성, 이직의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치과위생사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 직업성을 확립하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References

1. <http://stdweb2.korean.go.kr>,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2. Lee NC. A study on the structure of quality of life in OECD member countr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2; 32(2): 5-40.
3. Chu HC. The level of happiness index and determining factors[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 of Inje, 2005.
4. Cho YS, Park MS, Han GS. Dental hospital management sciences. Seoul: Komoonsa; 2003: 22-50.
5.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Reports to health and medical workers. Seoul: KHMWU; 2010: 5-6.
6. Ahn YS, Shin SJ, Jung SH, Lee YS, Lim DS. Comparison of job description and turnover trend among dental hygienists and assistant nurses in dental clinic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6; 30(3): 303-15.
7. Baek Su-Min. The influence of the internal marketing factors in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on the dental hygienist's turnover intention[Master's thesis]. Seoul: Univ. of Chung-Ang, 2009.
8. Choi SO. The development of an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process model for new nurses using a system dynamics approach. J Korean Acade of Nurs Admin 2005; 35(2): 323-35.
9. Lee BH, Kim JS.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burnout,



-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dental hygienists. J Korea Contests Society 2010; 10(11): 217-27.
10. Yoo EM, Han HJ. A study on the work and turnover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1; 11(1): 41-6.
  11. Kim JH, Kim HJ. Relationship between turnover and job stress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1; 11(1): 47-53.
  12. Choi HN, Lee JW, Cho YS. Factors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of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2011; 11(3): 343-51.
  13. Kim HY, Choi JO, Seong MG.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J Dent Hyg Sci 2012; 12(1): 213-23.
  14. Lee SS.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2013; 13(4): 535-42.
  15. Lee SM, Choi WJ, Han GS, Kim CH. Influencing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using by the path analysis. J Dent Hyg Sci 2013; 13(6): 941-9.
  16. Lee MO. Factors influencing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gnitive happiness among dental hygienists[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 of Inje, 2011.
  17. Kim JS, Won YS, Park SY. A study on self-esteem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s in part of Jeonbuk area.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2): 307-15.
  18. Kim HY, Choi JO, Seong MG.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1): 213-23.
  19. Suh EK, Koo JS.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25(1): 95-113.
  20. Baek HJ. Hall's Professionalism Scale Transl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nursing measures and equality comparison. J Korean Acad Nurs Adm 2007; 13(4): 509-15.
  21. Lee SR. The bodyguard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s influenced. J Korean Physical Education 2005; 45(1): 227-36.
  22. Nam MH, Kwon YC. Factors happiness index of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3; 19(3): 329-39.
  23. Yoon HS. Oral health status and cognitive happiness of the elderly[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 of Inje, 2010.